안녕하세요.

오늘 <공 – 공 – 제로>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에는 오디오디스크립션이 제공됩니다.

저는 박재용입니다. 공연의 오디오디스크립션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40초

지금부터, 공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은 주한영국문화원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한영상호교류의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페스티벌 아름다름은 예술이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공 – 공 – 제로>는 마크브루와 김보라가 함께 창작한 새로운 작품입니다.

이 공연은 한영상호교류의해 마지막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마크브루와 김보라는 제약, 몸, 시간에 대한 관심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번 새 작품을 위해 5주 동안 함께 리허설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신체 언어, 시각적 요소, 음악을 공연을 통해 켜켜이 쌓아 보여줍니다.

<공 – 공 – 제로> 에서는 시간과 공간, 신체, 이 모든 것들을 영(0), 즉 비어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같고 다름이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만도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마크브루와 김보라가 무용수로 공연에 임합니다.

**~~김보라~~**~~는 아트프로젝트보라의 예술감독으로, 한국무용비평가협회가 선정하는 ‘2017 비평가가 주목하는 안무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컨템포러리댄스를 중심으로, 장르와 공간의 개념을 허무는 작업을 합니다. 아트프로젝트보라는 무용 외에 다른 장르와 교류를 통해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반영하는 소재를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며, 독창적이고 위트 있는 안무를 선보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김보라는 비장애인이며, 여성입니다. 공연 중에는 머리를 짧게 뒤로 묶고 있으며, 머리는 검은색입니다.**

**~~마크 브루~~**~~는 예술감독이자 안무가입니다. 지난 20년 간, 영국과 세계를 무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안무가, 무용 강사 등으로도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 폐막을 위한 성화봉송식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한 공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자신의 무용단인 마크브루컴퍼니를 이끌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매거진은 마크브루를 런던의 떠오르는 무용가로 소개했습니다. 휠체어를 쓰는 자신의 경험과 고전 무용을 배운 무용가로서의 경험을 하나로 모아, 장애가 주는 제약을 통해 어떻게 새롭고 흥미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마크브루는 장애가 있는 남성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며, 공연 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합니다. 김보라와 함께 아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춤을 춥니다. 서로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지요. 마크브루는 몸이 마른 편이고, 백인 남성입니다. 머리는 밀었고, 수염이 살짝 난 얼굴입니다.**

**잠시 포즈//**

이제 공연의 의상, 무대 등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상은 최인숙이 디자인했습니다.**

두 무용수 모두 바지와 티를 입고 있고, 바지는 트레이닝복 스타일, 상의는 늘어나는 소재의 긴팔입니다.

보라는 버건디색 긴팔티를 입고 있고, 목은 라운드넥입니다. 바지는 창백한 회색으로, 여러 색깔의 소재가 기워져 있습니다. 각각의 소재는 촉감이 다릅니다. 두 개의 큰 사각형이는 것 누빔이 허벅지와 무릎 아래에 있고, 색은 검은색과 거품이 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보라는 옷을 문지르고 긁어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왼쪽 다리에는 대각선으로 노란 천이 붙어 있고, 발목 위까지 버건디색 천이 붙어있습니다.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오고, 하얀 양말을 신었습니다.

보라와 마크 모두 윗옷을 안무의 일부로 씁니다. 옷을 당겨 늘리고, 팔을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크는 회색 윗옷을 입었는데, 목 부분이 올라가 터틀넥 모양입니다. 바지는 좀 더 짙은 회색으로 각기 다른 소재가 기워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오렌지색 소재가 달렸는데, 마치 운동복에 있는 것 같은 소재입니다. 오른쪽 다리에는 어두운 녹색 소재가 무릎 아래에 붙어 있고, 왼쪽 다리에는 작은 하얀 공이 달린 검은색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마크는 검은색 양말을 신었고,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머리에 딱 맞는 어두운 회색 비니 모자를 씁니다. 마크와 보라는 이 모자를 서로에게 입히고 벗기며 작품에 활용합니다.

**앞에 있는 무대는 검은색 무다릅니다. 허벅대입니다. 바닥과 벽, 천장 모두 검은색이죠.** 무대의 넓이는 17미터, 깊이는 8미터 가량 됩니다. 바닥재는 무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두었고요. 지금 무대 위에는 커다란 직육면체가 놓여 있습니다. 청동이나 은처럼 느껴지는 표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에 비쳐 각기 다른 빛깔을 만들어내고, 직육면체가 빛나기도 합니다. 크기가 커서, 무용수들의 몸보다 더 큽니다. 긴 면은 3미터쯤 되는 크기입니다. 마치 단단한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무용수들은 춤을 추면서 이 상자를 활용할 겁니다.

이 퍼포먼스에는 “아바”도 등장합니다. “아바”는 마크가 춤을 출 때 타는 휠체어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작품을 설명할 때에는 그냥 ‘휠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바”는 검은색 날씬한 휠체어로, 작은 앞바퀴 둘과 큰 바퀴 둘이 달렸습니다. 의자에는 쿠션이 있고, 팔걸이에도 푹신하게 패딩이 붙어 있습니다. 바퀴는 아랫쪽으로 넓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연 중에는 이 휠체어에 타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조명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연기도 사용됩니다. 안개처럼 공기중에 퍼져나가는 걸 만들어서, 분위기를 가라앉힙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이 공연을 위한 사운드트랙입니다. 음악은** 앵거스 맥레이가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은 몸 속에 있는 장기를 표현한 겁니다. 유동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이죠. 무대 공간이 마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객 여러분**,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오디오디스크립션도 함께 시작됩니다.

**보라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손이 날개처럼 뒤로 올라가기도 하고, 원을 만들며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무대 오른쪽에서 마크가 등장합니다. 손으로 벽을 느끼고, 원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 보라는 무대 왼쪽에서 바닥에 툭, 앉았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라는 완전히 자신의 내부에 집중합니다.

마크가 휠체어를 몰아 직육면체로 다가갑니다. (시계침소리)

두 사람 다 직육면체 뒤로 갔다가, 보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마크도 직육면체 뒤에서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몸의 내부를 탐구하는 춤을 각자 춥니다. 보라의 몸은 마치 물결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마크가 직육면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몸을 숙이고, 직육면체를 건드립니다. 직육면체의 한쪽이 바닥에서 떠오릅니다.

마크는 팔과 손으로 소리를 내고, 보라는 바닥에서 떠오른 직육면체의 모서리로 다가갑니다.

보라가 마크에게 팔을 뻗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 끝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음악 시작됨)**

손가락 끝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공간 안으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의 끝이 두 사람의 몸 곳곳을 가리킵니다.

보라가 마크의 무릎에 몸을 기댑니다. 보라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여 마크의 목과 몸을 감싸고, 다리는 허공에서 움직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끌고 따릅니다. 마크의 손이 보라의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보라는 일어나서 마크를 이끌어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휠체어를 앞으로 당기고, 달리듯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손으로 연결되어 잇고, 마크도 보라를 이끕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마크도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보라가 원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팔이 움직이고, 계속 원을 그리며 무대 안에서 움직입니다.

보라가 마크를 붙잡고, 뒤에서 마크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립니다. 손가락이 마치 안테나처럼 마크의 머리 위에서 뾰족 섭니다. 마크의 목에 팔을 감고, 움직입니다.

보라가 마크의 목을 잡고 앞으로 숙입니다. 마크는 보라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크는 보라의 다리를 잡고, 보라는 마치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다리를 뺍니다. 마치 마크가 보라를 한 자리에 잡아두려는 것처럼. 보라는 다리를 마크의 등에 얹기도 하고, 바닥에 누워 다리를 휠체어로 뻗어 붙이기도 합니다.

보라의 손이 마크의 뒤통수를 받쳐주고, 마크는 마치 공중에 떠서 나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립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두 사람의 팔과 손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보라의 손이 마침내 마크의 이마를 짚습니다. **음악 잠잠, 바뀜**

**두 사람의 손가락이 연결됩니다. 마크의 몸이 뒤로 젖혀지고, 휠체어는 뒤로 움직입니다. 보라의 손가락은 마크가 있던 곳을 향합니다.**

**/ 약 14분**

보라의 한 손은 여전히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바닥을 가리킵니다. 보라가 직육면체에 다가갑니다.

마크는 무대 왼쪽에 있습니다. 한쪽 팔을 쭉 펴서 공간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보라는 직육면체를 이끌고 조용히 무대 오른쪽으로 갑니다.

마크는 팔을 써서 휠체어에 놓인 자신의 다리를 끌어 올립니다.

몸을 웅크리고, 휠체어의 뒤에서 몸을 기댑니다.

휠체어 뒤에서 몸을 앞으로 기대고, 팔로 휠체어를 바퀴를 움직입니다.

다리과 발은 바닥에 닿아 휠체어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몸을 휠체어 옆에서 기대고, 팔을 뻗어 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휠체어 바퀴가 마치 하프인 것처럼 쓰다듬기도 합니다.

직육면체는 무대의 오른쪽 뒤에 조용히 가 있습니다.

마크는 휠체어 위에 몸을 올리고,

바닥으로 몸을 떨어트립니다. 그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균형을 잡고 있던 보라도 바닥에 주저 않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크는 휠체어에 몸을 기대어 바닥에 앉습니다.

보라는 바닥에서 다리를 꼬았다 펴고, 직육면체의 그늘로 굴러 갑니다.

마크가 휠체어를 밀어 보라에게 보냅니다.

마크는 팔로 다리를 잡아 바닥에서 움직이고,

몸을 뒤집어 허공에서 다리를 움직입니다.

보라는 휠체어에 발끝을 연결해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따라 미끄러지고, 몸을 접고, 폈다가, 균형을 잡습니다.

휠체어를 마크에게로 밀고, 마크가 팔로 휠체어를 듭니다.

보라는 바닥을 굴러 마크에게서 멀어지고, 바닥을 기어 다시 가까워집니다.

휠체어에서 떨어진 쿠션을, 두 사람이 함께 머리에 괴어 받칩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고,

보라가 다리로 휠체어를 받쳐 듭니다.

손을 잡고, 공중으로 휠체어를 들어 올립니다.

마크가 한 팔로 휠체어 바퀴를 돌립니다.

마치 마크와, 보라, 마크의 휠체어가 삼인조가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휠체어를 함께 움직여봅니다.

마크가 휠체를 가져가 바닥에 누운 제 머리 위로 가져다 놓습니다.

보라는 이제 네 발로 움직이는데, 마치 슬로우모션처럼 움직입니다.

보라의 팔이 날개처럼 떠올라 움직입니다.

보라가 고개를 앞으로 숙여, 마크의 손에 이마를 댑니다.

보라는 마크의 손 위로 일어납니다.

마크의 휠체어를 잡아서 가져가고, 회전합니다.

휠체어에, 보라가 몸을 숙여 이마를 댑니다.

손 끝으로 휠체어를 잡고, 굽힌 팔을 부러진 날개처럼 움직입니다.

마크는 팔을 써서, 무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달팽이나 애벌레처럼, 몸이 굽혀졌다 펴졌다 합니다.

보라는 마치 자신만의 실험을 하듯 휠체어를 밀고, 휠체어를 움직이다, 자리에 앉습니다.

**(조명 변화)(음악 변화)**

연기가 공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오른쪽에만 빛이 갑니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조명입니다.

보라가 휠체어에 앉아 까딱이고,

마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보라를 향해 움직입니다.

보라는 마크의 등에 발을 얹고, 바닥에 가만히 내려붙게 합니다.

마크의 머리 위에 발을 얹고, 마크가 일어나며 다리가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보라가 탄 휠체어를 마크가 움직입니다. 보라의 다리가 허공과 바닥으로 뻗고, 발을 차고, 마크가 움직이는 휠체어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마크가 휠체어를 밀어 공간 안으로 보냅니다. 마치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마크는 직육면체 밑으로, 그림자 속으로 갑니다. 그 안에 자신을 숨김니다.

직육면체가 부드럽게 떴다 가라앉으며 공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보라는 발끝으로 움직이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육면체로 밉니다.

오른쪽에선 마크가 바닥에 붙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라가 손을 머리위에 얹어, 마치 새의 부리처럼 만들고, 마치 플라밍고처럼 보이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보라는 팔을 뻗어 공간의 가운데로 나갑니다.

플라밍고 새처럼 펼친 보라의 팔이, 무대 오른쪽에 있는 마크에게로 그녀를 이끕니다.

보라가 계속 새처럼 춤을 춥니다. 머리 위에서 손이 물결치고, 팔도 물결칩니다.

무언가에 빠져든 것처럼 보입니다. 보라의 손가락이 이빨처럼 물결칩니다.

보라의 몸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마크는, 무대 오른쪽 의자 뒤 바닥에 앉아 휘파람을 붑니다.

일종의 소통일까?

보라가 마크에게로 다가갑니다.

보라가 의자 앞에 몸을 숙이고, 의자 위에 살포시 올라가 주변을 살핍니다.

마크의 휘파람 소리가 계속됩니다.

보라가 직육면체 쪽으로 움직이고, 달팽이처럼 의자를 등에 올린 마크가 무대의 가운데로 기어갑니다.

의자 아래에서 나와서, 의자를 앞에 두고 기어서 움직입니다.

보라도 의자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직육면체를 무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의자를 가지고 마크에게로 갑니다.

마크가 의자를 왼쪽에 두고, 몸을 그 위로 가져가 앉습니다. 보라는 그 오른쪽에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의자를 놓습니다. 마크의 의자는 무대 가운데, 그리고 보라에게는 왼쪽에 의자를 놓으라고 신호를 줍니다.

**두 사람 함께 나란히 앉음**

평범한 의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서로를 쳐다보거나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마크가 보라를 쳐다봅니다. 마크의 바디랭귀지가 이상합니다.

**음악 시작됨**

조명이 어두워지며 두 사람의 자리만을 비춥니다.

마크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턱에 손을 굅니다.

보라는 고개를 푹 숙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마크가 보라의 뒤로 팔을 펼칩니다. 손가락이 툭 떨어지고, 팔을 다시 접어 되돌립니다.

마크의 손이 보라의 등에 닿습니다. 마크의 손이 보라의 목으로 걸어갑니다.

보라는, 마치 보이지 앉는 실로 당긴 것처럼, 몸을 일으켜세웁니다.

마크는 보라의 몸에 자신을 기댑니다.

보라의 머리 위에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보라가 한 쪽 다리를 접어 다른 다리에 올립니다.

두 사람은 일상의 몸짓을 각자 수행합니다.

다리를 접고, 팔을 접는 그런 행위들.

서로에게 안기는 것.

보라가 마크의 머리를 살짝 밀고,

다리를 접어 손으로 잡습니다.

마크는 보라에게 머리를 기대고 ,

다리를 잡아 접고,

서로의 다리를 포개기도 합니다.

마크가 보라의 발을 잡아 보라의 다리를 펴고,

보라는 다리를 뻗어 마크의 목 뒤로 올립니다.

두 사람의 몸이 서로 엮입니다.

서로를 감싸기도 하고,

접어내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눌리기도 합니다.

보라의 발이 마크의 얼굴에 닿기도 하고,

마크가 팔로 몸을 일으키면,

보라의 몸은 의자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보라가 다리를 벌려 뻗고,

마크는 의자 앞에 다리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마크가 의자 위에서 몸을 돌려 바닥으로 몸을 거꾸로 뻗고,

보라가 바닥에서 마크를 받쳐줍니다.

마크와 보라의 움직임이 하나로 공명합니다.

마크가 바닥으로 내려오고,

마크가 보라의 팔끝을 당겨 옷을 늘어뜨립니다.

마크를 따라 의자도 같이 바닥으로 눕습니다.

보라의 옷 팔 끝이 길게 늘어나고, 마치 팔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보라의 옷이 늘어압니다.

보라는 몸을 숙여 마크 위로 숙이고,

마크는 바닥을 굴러 옆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보라의 긴팔 옷이 이제 늘어나 완전히 벗겨집니다.

보라는 다리 사이에 팔을 끼고,

마크는 늘어난 옷 안에서 꿈틀댑니다.

보라는 팔끝을 늘어뜨리고,

마크가 꿈틀대는동안 팔끝을 놓습니다.

보라가 마크의 몸을 넘어 서성입니다.

보라는 의자를 넘어뜨립니다. 의자를 마크의 몸 쪽으로 넘어뜨립니다.

공간 안에 의자를 움직입니다.

보라가 의자에 앉고,

마크도 몸을 끌어당겨 의자에 앉습니다.

보라는 마크의 비니 모자를 뒤집어썼고,

보라와 마크는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조명 변화**

네모난 조명이 바닥에 비치고, 의자 주변을 액자처럼 둘러쌉니다.

마크가 한쪽 다리를 뻗어 보라의 무릎에 올리고, 보라도 다리를 뻗어 마크의 무릎에 올립니다. 두 사람의 다리가 오가고, 일상의 몸짓들이 교환됩니다.

바닥에 다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리를 꼬고, 펴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하고, 의자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묘사할 것**

마크가 보라를 따라갑니다.

마크가 보라의 의자를 잡고, 그리로 몸을 기댑니다.

보라는 의자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걸어 나갑니다.

마크의 기댄 몸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마크는 의자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앉습니다.

보라는 휠체어를 가져오고, 의자는 밖으로 가져 나갑니다.

**음악 조용해짐**

마크가 휠체어를 향해 휘파람을 붑니다.

보라는 휠체어를 밀어 휠체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마크가 휠체어와 함께하자고, 마치 그것이 사람인양 신호를 보냅니다.

휠체어 뒤에 앉은 보라는 생각하고,

휠체어를 멀리 밀어 내보냅니다.

휠체어가 다시 고간 안으로 들어오지만,

보라는 휠체어를 밀고 당겨 무대의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마크가 휠체어를 더 강하게 원하는 것 같지만,

휠체어는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보라는 휠체어 쿠션을 가져와 거기에 앉고,

마크의 대각선에 자리잡습니다.

휠체어를 마크에게 보냅니다.

마크가 휠체어를 잡고,

보라는 휠체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마크는 휠체어를 살펴보고, 검사합니다.

보라는 의자를 가져와 무대 왼쪽 뒤에 앉습니다.

뒤에 보라가 있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마크는 휠체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영(0)으로 만듭니다.

바퀴를 하나 때어내고, 굴려보냅니다.

바퀴는 나선을 그립니다.

휠체어 부품을 모자처럼 써보기도 합니다.

**음악 변화**

보라는 뒤쪽에 앉아서 분해의 행위를 지켜봅니다.

조몀은 격자무늬로 바닥을 비춥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을 비춥니다.

다섯 개의 줄을 이룬 조명입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휠체어를 분해하고,

우리가 휠체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해체합니다.

휠체어의 모든 부품을 해체합니다.

휠체어를 이리저리 살피고,

어쩌면 다음에 뭘 해체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휠체어의 바퀴를 공간 안으로 밀어서 굴려넣습니다.

바퀴는 나선을 그리며 원을 그리다 넘어집니다.

마크는 휠체어를 계속해서 분해합니다.

보라는 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려 있다가,

몸을 돌려 다리를 하늘로 뻗습니다.

휠체어 부품을 가지고 마치 망원경을 바라보듯 마크를 쳐다봅니다.

마크가 휠체어의 뼈대를 내동댕이치고, 의자에 몸을 얹습니다.

보라는 휠체어의 부품이 마치 지팡인 것처럼 짚고 걸어가고,

마크는 의자에 몸을 올린 채 무대 뒤로 꼬물거리며 이동합니다.

점점 더 멀리 이동합니다.

보라는 휠체어의 볼트를 집어들고, 머리 에 올렸다 떨어뜨립니다.

또다른 부품을 집어들어 눈가리개처럼 눈을 감쌉니다.

몸을 물결치듯 움직이고, 마치 동물과 같이 몸짓을 합니다.

몸을 숙이고, 일어나고, 다리를 벌려 구부리고,

휠체어의 의자를 집어들어 앉기도 합니다.

현악기를 연주하듯 휠체어의 살을 만지다,

바닥에 던집니다.

**조명 바뀜**

휠체어의 부품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풍경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보라는 휠체어 부품 주변을 움직이며 부품 위에 몸을 댑니다.

휠체어의 몸체를 검사하고, 휠체어의 몸체를 들고, 그것을 탐구합니다.

얼굴 앞에 들고 바라보고, 안에 들어가고, 그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다리를 휠체어 뼈대에 넣고, 팔에 들고, 몸을 그 안에 집어 넣습니다.

밖으로 나와 등에 뼈대를 올려 달팽이 집처럼 듭니다.

이제 직육면체로 다가가고, 머리를 숙이고, 또 더 동물처럼 움직입니다.

마크는 보라가 움직이는 동안,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동안, 자유롭게 뒤에 있습니다.

보라가 원을 그리며 마크에게 다가갑니다.

휠체어 뼈대를 마크의 발 아래 놓고,

마크는 휠체어 뼈대에 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의자에 앉아있고,

보라는 마크의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히 앉고, 휠체어의 뼈대가 발받침인 양 편히 발을 올립니다.

두 사람 모두 차분해 보입니다.

새로운 주변 환경을 둘러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을 흡수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처럼 다릅니다.

제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은 아직 휠체어의 뼈대에 기대고 있고,

보라는 다리를 마크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마크는 몸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보라 또한, 몸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크는 바닥에 자신의 몸을 눕힙니다.

보라는 몸을 접고, 일어납니다.

휠체어의 부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크의 비니 모자를 집어들고,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조명이 공간을 따듯하고 부드럽게 감쌉니다.

보라는 휠체어 부품을 모아, 마크에게 가져다줍니다.

두 사람은 부품을 한데 쌓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질서로, 휠체어의 부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뼈대 위에 바귀가 놓이고, 쿠션이 놓입니다.

보라는 마치 아이처럼 휠체어 바퀴 하나를 굴려 가져갑니다.

휠체어 부품들은 마치 조각품같습니다.

마크의 휠체어는 새로운 모양을 띠게 됩니다.

마크는 휠체어를 관찰합니다.

보라는 윗옷을 다시 입습니다.

마크는 새로운 휠체어, 공으로 돌아간 새로운 질서를 바라봅니다.

마크는 직육면체 아래로 굴러 들어갑니다.

직육면체는 균형이 변해 새로운 각도로 기울어집니다.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트는 그 아래 가만히 누워, 손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직육면체가 무대를 움직이는 동안,

마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보라가 직육면체 뒤에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직육면체가 부드럽게 공중에 뜨고,

마크의 머리 위에서 움직입니다.

보라가, 마크와 함께합니다.

직육면체가 가장자리에서 기울어진 채, 균형을 잡습니다.

보라는 마크에게 비니 모자를 돌려줍니다.

둘은 가만히 눕습니다.

함께.

가만히,

편안하게,

위에 떠 있는 직육면체를 바라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 암전됩니다.

불이 다시 들어오고,

마크와 보라가 서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마크가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라가 서 있습니다.